

## 본국 '코로나19 대 확산' 교회 모임 중단됐다

의심 증세 성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 권유  
박양우 문체부 장관, 여의도순복음교회 점검  
찬양대 찬양대 대신 독창 또는 연주로 대체해  
신천지 신도 우려에 미등록 교인 통제 진행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 되는 가운데 확진 환자(2월 26일 현재)가 하루 만에 284명 증가하면서 본국 내 확진자는 총 1261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 중 사망자는 12명이며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는 종전 22명에서 24명으로 2명 늘었다. 확진자를 제외한 검사 대상 중 검사가 진행 중인 의심 환자는 2만 716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 되는 대구 지역 교회들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방역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주일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자체 연락망을 통해 개인 방역과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발열 등 증세가 있는 성

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는 주일예배와 새벽예배, 수요말씀강해와 금요성령대망회 등 '공예배' 외 나머지 모임 및 예배는 3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또 예배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출입구에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매일 교회 내 모든 공간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3일 주일예배에서는 성도 등록증 확인 후 예배당 출입을 허가하기로 했다.

성도수가 10만 명에 달하는 강동구 명성교회는 정도 대남병원을 다녀온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회 전체가 폐쇄되고 시설물



열화상 카메라로 예배당에 입장하는 성도들의 발열을 체크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이용이 금지됐다. 해당 부목사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는 4부 예배에 참석하고, 자가 격리를 시작한 지난 21일까지 7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성교회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일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와 교회 내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회는 "1980년 7월 6일 교회 창립 이후 매년 3월과 9월에 진행해 온 특별 새벽집회를 금년 3월에서 무기한 연기한다"며 "모든 교회 시설과 부속건물의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종로구 소재 새문안교회(담임 이상학 목사)도 주일예배 등 공예배를 제외한 교회 내 다중집회 행사는 당분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3면에 이어서 계속]



2020년 2월 26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 사순절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 코로나19 위해 함께 기도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수난

day)이다. 그리고 이날부터 부활절인 오는 4월 12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기독교에서는 '사순절(Lent)'이라 부른다.

잘 알려져 있듯, 사순절(四旬節)은 '40일(라틴어로 quadragesima)'이라는 뜻이다.

'재의 수요일'과 부활절 날짜는 매년 달라진다.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325년 니케아공의회에서는 춘분(3월 20-21일) 이후 보

름달이 뜬 날의 다음 주를 부활절로 지정했다.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수난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나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신 희생의 길을 묵상하며 그 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르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각 교회는 주일예배마저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퇴치와 환자들의 회복 등을 위해 기도

하는 40일의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재의 수요일

부활절로부터 역순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순절의 첫날은 항상 수요일이다. 기독교회는 이를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불린 것은 이날 예배에서 재(Ash)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재의 수요일 예배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의 머리 혹은 이마에 물에 적신 재를 갖고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는 순서를 가져왔다.

재의 수요일에는 인간의 죄와 유한성, 인생의 무상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깨우친다. '재'는 참회와 회개, 유한성, 정화와 순수, 농경문화에서는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밀겨름 등을 의미한다.

최근 사순절에는 '미디어 금식'이나 '장기기증 캠페인', '북한 돕기 모금' 등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정,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 장재효 목사 초청 영성집회

주제: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께 쓰임받자

### 집회 일정

2월 25일(화)	오전 10:00~오후4:00	엘에이영성훈련원 특강 (대표 박철수목사)
2월 29일(토)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3월 1일(주일)	오전 11:0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상훈)
3월 1일(주일)	오후 3:30	원호프처치 (담임목사 남승우)
3월 2일(월)	오전 10:00~오후4:00	엘에이 영성훈련원 특강 (대표 박철수목사)
3월 3일(화)	오전 10:00~오후4:00	엘에이 영성훈련원 특강 (대표 박철수목사)
3월 8일(주일)	오전 11:00	갈보리새생명교회 (담임목사 민승기)
3월 9일(월)	오전 9:30~오후1:30	엘에이지역 목회자세미나
3월 11일(수)	오후 7: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담임목사 엘리야 김)
3월 15일(주일)	오전 11:00	찬양교회 (담임목사 김성대)
3월 20일(금)	오후 7:00	주백성교회 (담임목사 김성규)
3월 21일(토)	오후 4:00	주백성교회 (담임목사 김성규)
3월 22일(주일)	오전 11:00	주백성교회 (담임목사 김성규)

### 남가주지역 목회자 초청세미나

일시: 3월 9일(월) 오전 10:00  
장소: 마가교회 (181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식사에약관계로 미리 연락주세요.

###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a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전국기도원 총 연합회 총재
- 성은동산(기도원, 경로원, 수양관) 원장
-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주 관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International Holy Grace Gospel Mission)

문의전화 : (213)739-0403, (213)718-1512

# 남가주 한인 여성목사회 제10대 회장단 출범

## 회장 이명희 목사, 수석 부회장 박정희 목사, 이사장 김은주 권사 취임



남가주 한인 여성목사회 제9대, 10대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명희 목사가 회장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남가주 한인 여성목사회 10대 회장으로 이명희 목사(ANG 교회), 수석 부회장으로 박정희 목사(새마음 교회), 이사장에 김은주 권사가 취임했다.

남가주 한인 여성목사회는 지난 23일, 미주 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제9대 회장 이임식 및 제10대 회장단 취임식을 갖고 2020년 사역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다수의 남가주 교계 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남가주 한인 여성목사회가 연합과 섬김의 성숙된 모습으로 말과 행동에 부끄럼 없이 말겨진 사역을 충성스

럽게 감당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명희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송진순 목사가 기도하고 민 김 회장(OC 전도연합회)이 성경봉독을 한 후 예루살렘 성가단이 특별 찬양했다. 이어 신소피아 목사(세계여성리더대표)가 "주님이 나를 세우시다"(요한복음 15: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김숙영 목사의 봉헌 찬양, 안선신 목사가 봉헌 기도했으며 조현숙 목사의 광고 후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 목사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이·취임식에서 주재임 목사(9대 회장)가 이임인사를 전한 후

10대 회장인 이명희 목사가 취임사를 전했다.

취임사를 전한 이명희 목사는 "미국과 세계의 부흥을 이끌어 온 세계적인 선교단체 창립의 모태가 됐던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한번 LA와 남가주, 미국과 전 세계의 변화와 개혁을 향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이라 믿는다"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여성 목회자들이 LA와 남가주의 치유와 회복,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회장 취임패 및 이임회장 공로패 전달 후 민승기 목사(미기총

회장), 이정현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호우 목사(OC 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장), 김엘리아 목사(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총장)가 축사했다. 또 김인철 목사(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총회장), 이명수 목사(청운교회 담임), 조이엘 목사(300용사 선교회 대표), 김희창 목사(연목회 증경회장)가 만찬기도했다.

제10대 남가주 여성목사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명희 목사, 수석부회장 박정희 목사, 총무

조현숙 목사, 부총무 김재민 목사/김영일 목사, 서기 조안나 목사, 부서기 황선희 목사, 회계 조은혜 목사, 감사 안선신 목사/주재임 목사, 자문위원 백지영 목사(4대), 강지원 목사(5,6대), 김헬렌 목사(7대), 안선신 목사(8대), 주재임 목사(9대).

한편 이명희 목사는 나눠진 남가주 한인여성목사회(회장 김인숙 목사)와의 통합 여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시간에 하나되지 않겠다. 언제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며 연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동욱 기자



수지 오 박사(오른쪽)과 김동희 작가가 자리를 함께 했다.

3월 첫 주 전국책 읽기 주간(Read Across America Week)을 맞아 한 인터넷에서도 '토론식 독서지도법'

에 관심 있는 학부모를 위한 독서교육 세미나가 열린다.

오는 3월 7일(토) 오후 2시, 동양

## 우리 아이 사고력 높이는 독서법 따로 있다

### 3월 7일 오후 2시 동양선교교회, 전 3가 초등학교 교장 수지 오 박사 교육 특강

선교교회 비전센터(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에서 '토론식 질문 독서법'을 주제로 열리는 교육 특강은 전 3가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수지 오 박사가 강사로 나서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서법, 똑똑하게 질문하는 독서법 등 책을 통해 사고력과 상상력, 표현력을 높이고 사회성을 키우는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교육계에 41년 몸 담았던 수지 오 교육학 박사는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질문도 전략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높은 수준의 사고력이 필요한 질문들을 함께 생각하고 답하며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동희 작가는 "글을 읽고 이해하고, 이것을 다시 자신의 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능력인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미국 교육에선 이를 어떻게 하고 있고, 가정에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늘 궁금했다"면서 "자녀를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해 유익한 정보를 얻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희 작가는 지난해 '미국 엄마의

힘(황소복스)'을 펴낸 바 있다.

이번 독서교육 세미나 수강료는 10달러며, 4세 이상은 차일드케어비를 제공한다. 참석자는 수지 오 박사의 학년별 추천도서 목록을 받을 수 있다. 예약 및 문의는 이메일(LABOOK2020@gmail.com)로 하면 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아동문학작가인 닥터 스스(Dr. Seuss)를 기리며 매년 3월 2일을 전국 책읽기의 날, 3월 2일이 있는 주간을 책읽기 주간으로 기념하며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들을 펼친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http://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http://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http://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2년의 노하우** 1-20 자격신청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mailto: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213)833-8208

2975 Wilshire Blvd, #B01, LA,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ICS)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2020 효사랑**

**제 8 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가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가정에 있음을 배우고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

**[ 행사 내용 ]**

작품 분야 : 글짓기, 그림 부문  
주 제 :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소주제 예제문: 나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등

접수 기간 : 2020년 3월 1일 ~ 3월 31일 (화) 마감  
제출방법 : 우편, 방문 혹은 E-mail : [hyosarangus@gmail.com](mailto:hyosarangus@gmail.com) (글짓기에 한함)  
그림 작품은 개인별로 접수

참가비 : 1st child \$20, from 2nd child \$10 (check payable to Hyosarangus)  
제출 및 문의 : 효사랑 선교회 ( 714.670.8004 or 562.833.5520 )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E-mail : [hyosarangus@gmail.com](mailto:hyosarangus@gmail.com)

**[ 발표 및 시상 ]**

시상 일시 : 2020년 4월 25일 (토) 10시  
홀러튼 장로교회 (515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상금 및 상품 : 대 상 (2) - 상금 \$500  
최우수상 (4) - 상금 \$300  
우수 상 (6) - 상금 \$200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및 상장 수여

효 글짓기 : Letter size 3 pages (글자크기 12pt)  
효 그림 : 14" x 17" (크레파사, 수채화, Drawing, 아크릴 등)

\* 작품 제출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10줄 이내의 내용 설명과 함께 Full Name, Grade, E-mail, Phone No, 를 꼭 명시해야 함  
\* 작품은 시상식 당일 행사 후 반환 가능

후원단체

O.C. 교협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OC 장로 협의회  
[www.ocrcc-oc.org](http://www.ocrcc-oc.org)

openbank

MICHELLE STEEL

Steven Choi  
STATE ASSEMBLY

Sharon Quirk-Silva  
DISTRICT 64

HAVEN

가주 교육신문

# 다우니제일교회 아프리카 케냐에 300석 규모 예배당 헌당



아프리카 케냐 말랑가교회 헌당 후 현지 목회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다우니제일교회 선교팀

다우니제일교회(담임 안성복 목사)가 아프리카 케냐에 300석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 헌당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기쁨을 누렸다.

케냐 말랑가교회는 장년 80여 명, 중고등부 40여 명, 아동부 6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그동안 판자로 세워진 허름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 왔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우니제일교회 성도들이 2019년 말랑가교회 건축을 결정했고 지난 12일 케냐를 방문해 헌당식에 함께 했다.

안성복 목사는 “말랑가 교회는 한국인 이은용 선교사에게 신학을 배우고 안수받은 현지 조프리 목사가 개척한 교회”라며 “조프리 목사님은 사역이 더 어려운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 교회를 개척하고, 현재는 젊은 목회자가 말랑가교회 후임으로 세워져 앞으로 더욱 부흥할 수 있는 교회라고 소개했다.

이번 방문에 동참한 선교팀은 말랑가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누리는 감사와 감격을 통해 함께 하나

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됐다. 또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과 수고를 공유하며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한 선교팀 멤버는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마음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됐다”며 “계속해서 선교지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 본지 주최, 장재효 목사 초청 남가주 목회자 세미나 열린다



지난 2016년에 열린 장재효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본지가 주최하는 ‘장재효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남가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9일(월) 오전 10시 마가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개최된다.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계 쓰임 받자!”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남가주 지역 목회자와 사역자,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석할 수 있다.

세미나 주강사로 나서는 장재효 목사(성은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제79, 83, 84회 총회장을 지냈으며, 국제신학대학원 초대 총장, 바

른목회연구원 원장, 전국기도원총연합회 총재, 성경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등 수많은 기독교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맡은 바 있다.

장재효 목사는 서울 성은교회를 개척해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진리정통·성령충만·선교확장을 목표로 훈련시켜 부흥하는 교회로 명성을 얻고 있다. 또 미주 교계 및 전 세계에서 목회자 세미나 및 교회 부흥회를 이끌며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다.

문의 213) 739-0403 김동욱 기자

### [면 "본국 '코로나19 大 확산' 교회 모임 중단됐다" 이어]

서울 서초구(양재)에 대형 예배당이 있는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도 “감기 증상(기침, 가래, 목 아픔)이나 발열(37.5℃ 이상)이 있는 분, 한 달 이내 중국 또는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아시아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지 마시고, CGNTV나 온누리교회 유튜브를 활용 해 달라”며 “예배 외에 모든 양육과 사역 모임을 취소한다. 예배를 위한 장소 외에 교회 내의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온누리교회 측은 “새가족반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으니,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4월부터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 교회 식당도 당분간 운영되지 않는다”며 “예배 시간을 포함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 주시고, 기침 예절(기침이 나올 때 옷소매나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기)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성남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도 주일인 23일부터 모든 예배를 송림 분당 대신 서현 드림센터에서만 드리기로 했다. 모든 예배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로 했으며,

대청교구 예배와 주일학교 현장 예배도 당분간 드리지 않는다. 찬양대와 새가족부도 송림 분당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사역이 중지된다.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지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 호산나교회(담임 유진소 목사)는 △기침 시 반드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릴 것 △중국을 다녀온 경우 1주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 △출입 시 손 소독제 사용과 악수 대신 목레 인사 등을 안내했다.

한편 천주교도 별도의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를 중단한다. 특히 서울대교구는 1831년 교구가 생긴 이래 190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했다.



마스크를 쓴 채 예배드리는 성도들. ©사랑의교회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 피어날까? /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목사(장신대 영예교수), 이종희목사(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전도 공동대표), 권준목사(주빌리대주대표), 신정민목사(복음전도 대역이다), 유관지목사(동일로교회), 김진석목사(KCC공동대표)

박상원 목사 책의 편저자

\* 해외 책은 국제 배송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늘 피어날까’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기록되어 중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 우리에게 복음통일과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울려준다.

\* 세크오디빙: 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기도동작**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이런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승자가 될까? •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알려 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리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데일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한 달에 30불, 35불 소액 회원 가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세요!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206.,LA CA 90005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213)318-5227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46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코로나 19 확진과 선교사역 현황 변화를 접하며..”

단 한 주간의 시간 흐름 속에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국내는 물론 해외 한인사회까지 큰 충격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필자가 접한 선교대회 및 선교지 방문 등의 일정들이 이번 주말에도 취소 내지는 축소 조정 등으로 분주하게 대책을 수정하고 있다.

이번 주 28일부터 시애틀 형제교회에서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미주대회인 “비전나이트” 행사에 한국 스텝들이 대거 참여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 19 확진자 증대 발표를 접한 후 모두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혹시나 한국으로부터 미주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쪽을 고려한 어려운 결정이었다. 미주 진행팀에서도 그분들의 깊은 배려의 용단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필자가 섬기는 선교단체에서도 2월부터 진행되는 아랍 국가들에 대한 단기선교 및 단체 집회 등을 모두 중단하고 대책을 정비하고 있다. 너무 짧은 기간에 갑자기 불어닥친 전염병의 확산에 각 국가도, 해당 국가의 정부 당국도 속수무책이었으며, 교회도 당황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 고국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고국에서는 확진자가 발견된 교회들이 예배는 물론 모든 모임을 폐쇄하는 등 날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말 선부른 어떤 신앙적 말로 이 고난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대부분 목회자들이 알고 있기에 쉽사리 소신 있는 신앙적 표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전염병의 확산 사태가 앞으로 어찌 될 것인지 좋아질지 나빠질지 아직은 어떤 속단도 내릴 수 없는 상태이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밖에는 없다.

많은 말들이 거름망 없이 무책임하게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오직 의지할 수 있는 한 길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필자는 시편 91편의 기도를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모두 같이 하기를 권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 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니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 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시편 91:1-7)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자. 그분의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바라는 우리 교회들에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교회의 회개이다.

하나님 뜻을 분변 하지 못하고 불의 앞에서의 무능했던 것, 그리고 순간의 평안을 위해 싸우지 않고 타협했던 죄들을 회개하자.

교회들의 이기적인 처세의 모습들과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온실 곳에 화초같이 머물게 한 죄를 회개하자.

바알에게 무릎 꿇고 수많은 우상 앞에 무릎 꿇은 비겁한 성도들의 모습을 회개하자.

우리 교회가 이때에 하나님을 대하여 다시 바르게 다시 확신 있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서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자.

### 앨런 포의 ‘적사병의 가면’ 과 코로나19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까다로운 문제를 만나면 해결책을 책에서 찾습니다. 먼저 우리 삶의 전거(典據)인 성경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늘 성경은 온전한 대답을 줍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봅니다. 문학은 성경에 비할 수는 없지만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줍니다. 문학이 주는 영감과 교훈을 향유합니다.

저는 문학에 대한 움베르토 에코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인문학자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9개의 언어에 능통했고, 40여 개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자신이 교수로 일했던 볼로냐 대학교 도서관 모든 책들의 위치를 기억했던 천재입니다. 그는 ‘문학은 죽는 법까지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학이 주는 영감과 지혜를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금번 코로나 19 뉴스를 들으며 성경을 펼쳐 전염병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것이 지난주 칼럼이었습니다. 아울러 전염병을 다룬 소설들 즉,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 주제 사마라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체호프의 “티푸스”, 에거트 앨런 포의 “적사병의 가면” 등등을 읽으며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앨런 포의 “적사병의 가면”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소설 “적사병의 가면”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에 적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맹위를 떨칩니다.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온몸이 썩고, 머리가 아프고, 콧구멍에서 피를 펄펄 쏟으며 죽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얼굴에 진홍색 반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을 적사병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환자에게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간호와 동정을 멈추고 도망칩니다. 온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나라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고, 문을 철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높은 벽과 철문으로 봉쇄했지만 전염병은 높은 담과 철문을 조롱했습니다. 어설플 차단과 통제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셋째, 막연한 낙관론이 사태를 키운 것입니다. 그들의 대책은 은둔 생활이었습니다. 외딴곳에서 조용히 은둔 생활을 하면 전염병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천박한 낙관은 보기 좋게 무너집니다. 전염병을 낙관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전염병을 교만한 맘으로 가벼이 여기면 큰 낭패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넷째, 백성은 고통인데 잔치가 웬 말입니까? 나라의 지도자 대공은 적사병이 창궐하는데 잔치를 벌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무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무도회에서 대공이 적사병으로 죽습니다. 이 극적 결말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가인 미국 단편 소설의 선구자인 에드거 앨런 포는 지도자들의 모순과 무책임을 질타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코로나 19를 대처하고 있나요?

인류는 앞으로도 전염병을 만날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신종 전염병으로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황하며 소란을 피울 것입니다. 모든 신종 전염병을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가 직면했던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사망병’입니다. 인류 최대의 전염병인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십자가에 전염병 대처의 왕도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희생이 생명의 역사가 된 것처럼 메르스도, 사스도 희생과 헌신으로 이겼습니다. 금번 코로나 19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겨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지도자의 무책임한 피난이 문제입니다. 전염병이 난리인데 대공과 그의 친위 귀족들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사원에 피신합니다.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자신들 살길만 찾습니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지도자들의 피신은 그들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이런 일이 흔하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둘째, 어설플 봉쇄는 헛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원에 들어가 꼭꼭 숨었습니다. 사원의 벽을 높이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김완중 총영사를 규탄한다

LA 김완중 총영사가 한인커뮤니티 한인회관을 사유화하고 한인들을 농단하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김완중 총영사를 규탄한다. 본 한인회관 건물은 우리 한인들의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인들과 미 주류사회와의 교류 증진과 문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인회관은 우리 교포들이 1974년도 피와 땀으로 어렵게 구입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요 이민역사에 살아 있는 현장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차세대들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미 주류사회를 향하여 뺏어 나가는 전진기지가 되는 소중한 자산이며 후손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한인관을 김완중 총영사는

1. 한인회관을 사유화 하고
  2. 이사회 구성도 총영사 마음대로 임의 결정하고 한인들의 의견수렴없이 독단으로 만들었으며
  3. 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이사가 되다,
  4. 법정관리 신청할 때 소송당사자는 절대로 새로 구성된 이사회 들어갈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하였으며
  5. 주법 사단법인 등록이 이중적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1. 무슨 회장이 봉급을 받고 2. 실제 한미동포재단의 이사장은 주법에 등재되지 않았다.
- 이런 괴변으로 동포사회를 우롱하고 품수로 일관하고 있는 김완중 총영사는 마땅히 직위파면 되어야 한다
6. 한인회관 관리회사도 총영사가 독단으로 결정하여 입찰공고 없이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7. 현재 한인회관에 입주한 점유자들에게는 당분간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 놓고 파קי비를 100%를 올리고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렌트비 인상을 조종하고 법과 절차와 순서를 다 무시하고 무소불의 행동을 일삼고 있으며 우리 한인들은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적법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번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김완중 총영사를 120만 한인들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 《김완중 총영사를 규탄한다》

[구호]

1. 김완중 총영사는 한인회관을 사유화 하지 말라
2. 김완중 총영사는 새로 구성된 한미동포재단 이사회를 즉각 해체하라
3. 새로구성된 한미동포재단은 총영사가 만든 이용 단체며 이사들은 전원 사퇴하라
4. 총영사는 교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5. 총영사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라
6. 총영사는 그 동안 한미동포재단 이사회 구성 전 과정을 공개하라
7. 황인성 부총영사는 한미동포재단 이사를 즉각 사퇴하라
8. 김완중 총영사와 황인성부총영사를 즉시 본국으로 소환하라
9. 한인회관을 한인사회로 환원하라
10. 김완중 총영사는 GO Back to Korea

### 범 동포 규탄 쫓기대회 참석 단체

주최 : LA한우회, 재미 한국 노인회, LA노인회, 미주총연 서남부협회, 행복재단, 한인회관 세입자협회, 전미한인복지협회, 미주동포후원재단, 장애유사망교회, 범미주국기협회, 재미한인 지위향상 위원회, 나성 동부 한국 노인회, Southbay 노인회, Topa Duba Homeless 정착 지원재단, Economic Development Consortium

\* LA한인교민은 2020년 2월 27일(목) 오전10시 30분 총영사관 앞으로 규탄대회 참석합니다.

# “현대교회,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선교 모델 찾아야”

## [인터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 아시아부 박성진 학장

신학교 강의차 남가주를 방문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 아시아부 박성진 학장으로부터 현대교회에 필요한 변화와 개혁에 대해 들어왔다.

박성진 학장은 복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현대 교회는 지역 사회의 문화와 다양성을 고려한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속적 가치에 동화되지 않는 교회의 정체성 확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이신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현대 교회가 극단적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화 가운데 교회 위기의 원인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와 문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복음으로 소통하는 본질적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학장은 한양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재료공학을 공부하고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6년간 재직하다 신학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 구약 전공으로 신학석사 학위(Th.M.)를 받았으며, 히브리 유니온 칼리지에서 비교 문헌 언어학과 고대 근동학으로 석사(M.Phil.)와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이하는 일문일답.

### 신학 교육을 마친 목회자들이 사역과 목회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여러 교회들의 성공 사례나 제자 훈련을 답습하는 것보다 사역하는 교회가 처한 환경과 지역 문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미국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한국과 미국의 상황과 문화가 다르다. 개척한 교회가 뉴욕이나 LA, 휴스턴처럼 대도시에서 있지 않고 백인 위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을 수 있다. 또 파병과 전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군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한국에서 오고 가는 주재원들이 많은 도시도 있다. 교회마다 컨텍스트(환경)가 다른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어느 교회가 성공했다더라’,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더라’ 식으로 쫓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에 최적화된 선교 모델을 찾는 것이 목회의 시



박성진 학장은 “현대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적 가치에 동화되는데 있다”며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회개와 치유하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작이다. 그리고 주변 지역 목회자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교회에 최적화된 선교 모델을 찾을 수 있다. 또 개척이 아닌 교회에 부임할 경우에는 이전 목사님들이 추구해온 가치와 목회철학, 교회 구조와 선교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것이 다원화, 상대화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현대 교회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에 실패하게 된다면 자칫 에센파와 같이 세상과 동떨어져 배타적 성격을 띤 모임이 될 수 있다.

현대 교회가 가장 공격받는 부분이 배타성인데 구원의 유일성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경멸과 조롱에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 기독교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1세기 초대교회는 로마제국 하에서 유대교와 같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다신 숭배를 배척하면서 유대교 하위집단에 불과한 이들로 인식됐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조롱과 수치의 문화 환경

운데 던져졌다. 당시 바울은 명예와 희생을 중시했던 그 문화와 가치 체계를 파악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고귀한 헌신을 설명해냈다. 그리고 희생을 감내하지 않는 문화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좋은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이들로 등장하면서 문화 변화를 일으켰다. 기독교인들의 선한 행실과 환대는 당시 헬레니즘 문화와 지적 교만이 편만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내가 기독교의 좋은 가치를 갖고 있으니, 당신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의 가치를 삶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현대 교회에 필요하다.”

### 동성애 이슈,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 ‘동성애’라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에게 대해서는 포용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사람을 포용하지 않고 혐오하는 부분이 드러난다. ‘하나님만을 향하겠다’는 열심과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배척으로 나타나면 안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간음한 여인을 향해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셨다. 간음한 여자

가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이 든다면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이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자신감이 없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혐오와 배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동성애 행위는 죄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성애는 바로 그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다(It’s not the sin but a sin). 교회는 의인들만의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고백해야 한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백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있다.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무조건 혐오와 정죄하기보다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그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시켜주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가치관의 변화는 강요를 통해서 이뤄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참아주고 인내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한다.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치유하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 현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상은?

먼저는 대형 교회를 목표로 해서

는 안된다.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먼저다. 대형 교회가 목회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교회는 잃어버린 본질과 방향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삶을 세속의 삶으로 혼동해 모든 것을 배척하는 사고도 지양해야 한다.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적 가치에 동화되는데 있다. 복음의 자신감이 필요하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대화와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 소통이 막혀버리면 현대 교회는 고립을 자처하게 된다. 문화 현상을 직시하면서 수용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기독교 정체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반대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가 우리 삶의 환경인 컨텍스트에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교회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안정’과 ‘문제없음’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교회는 고민하고 투쟁하고 변화하는 교회여야 한다. 공동체로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솔직하게 성도들과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한편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 학원(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은 ‘교회를 위하여’란 기치로 1957년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Missouri Kansas City)에 개교 이래 목회자들을 위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 남침례회에서 설립한 여섯 개의 신학 대학원 중 하나며, 북미 주류 신학대학원 학위를 인가하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종합대학교 학위를 인가하는 미국 고등교육위원회(HLC, Higher Learning Commission)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드웨스턴은 한국부, 중국부, 히스패닉부, 루마니아 부를 설립해 각 나라 모국어로 100% 신학 강의를 진행해 다양한 민족에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한국부는 성경사역 철학 박사(Ph.D.), 교육 목회학 박사(D.Ed. Min.), 목회학 박사(D.Min.), 목회학 석사(M.Div.), 신학연구 석사(MTS), 석사중단학 석사(MACO) 등 북미 내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위과정 중 가장 큰 규모로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김동욱 기자

#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PC(세계적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www.mbti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사,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시편 104:28-35



서울성모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시편 104:28-35**

28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흠으로 돌아가나이다 30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시라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31 여호와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와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32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발하도다 33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 나의 목상을 가삼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와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35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한다는 이 노래는 세상 노래가 아니고 심령의 노래, 찬양을 다 잡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알고 믿어 주셔서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살게된 우리는 하나님이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엄청난 희생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황송무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았거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필연적으로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올바르게 못한 사람들은 은혜는 은혜대로, 구원은 구원대로 받아 쟁기고 생활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소욕을 위해 거짓말과 남을 손해 입히면서 자기 살피는 세상조건들을 가꾸는 일에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21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말은 본래의 창조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은혜계약의 성취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보혜사로 파송시켜 주셔서 재창조하신 거듭난 성도의 삶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재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8-29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흠으로 돌아가나이다"란 표현은 상당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 하나님 주권에 전적으로 의

지하는 정통 보수 신앙의 원리를 이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36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는 사도바울의 신앙고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신앙고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신앙을 재정립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이 목적이 있어서 주장하시는 가운데 존재하다가 주님이 정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신앙은 만고에 가장 정통하고 보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보살피시며 하늘조건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손을 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함께해 주시니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얼굴을 돌리시고 감추시니 심판을 받게 되고 두려움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니 육신도 한 줌 흠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주신 그 시간부터 내 인생의 고평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은혜보장을 허락받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사정없이 치시니 정신이 아찔하더라" 하니 듣고 있던 사람이 "그 어디 신경 쓰여서 세상 살겠나, 나는 말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 재미도 즐기고, 내 맘에 원하는 것에 꼭 빠져 즐기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는 절대로 때리시는 일이 없던걸...그러니 하나님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합니다. 후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척 하는 거짓 신자임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신 안 될 길을 가면 그 길을 막고, 해선 안 될 짓을 하려 할 때도 막으시지만 그래도 하게 되면 사정없이 때려서라도 회개하게 만드시고, 다시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못하도록 처리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6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체찍질하심이니라"했습니다. 버려진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산자이지만 실상은 이미 죽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리 진리 안에서 거듭나기를 재촉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폐단으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믿어지는 믿음의 자격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나를 두고 집중적으로 역사해 오신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에 살던 아담과 이브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당신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며 살아주길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하신 신앙 사명적 기대가 확실했을 동안 그들에게 온전히 허락받으신 축복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앙을 상실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 영적으로 마귀에게 예속되고 나니 그 모든 조건은 서둘러 하나님이 빼앗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자녀지간의 인연으로 인정만 받고 있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염려하시고 준비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주제에 그분의 자녀된듯 착각하고 "하나님, 아버지..."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죄인 그대로 예배당만 들락거렸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22-23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

신을 좇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가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만 하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조건을 보장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밀을 깨닫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 더욱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진리가 정통한 교회, 영적인 소망을 올바르게 가꿀 수 있는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단사들이 난무하고 영계가 극도로 혼란해 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 정력과 재산을 다 바쳐도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잘못된 함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신앙기준으로 영적차원에서 찾아보면 무진장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으로 살다보니 이권과 야심 때문에 감사보다는 허욕으로 불만과 불평, 탄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성경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북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오후 6시 / 동부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통증탈출 양자칩

##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 양자 깔창

##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격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격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 PRESIDENTS' DAY SPECIAL SALE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 NEW 2020 HYUNDAI SONATA SE

Lease **\$188** +Tax **0 Down** **\$26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3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담임목사 청빙

달라스 베다니 장로 교회는 (1986년 설립) 복음연합 장로 교단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소속 교회로 복음전파와 다음세대의 믿음 전승을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번 담임목사님의 은퇴(25년 시무)로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수고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실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청빙 자격 (자격 조건)

1. 장로교 및 개혁 신학교 M. Div 졸업자.
2. ECO 교단 소속 혹은 가입에 문제 없는 분.
3. 이중 언어 소통이 가능한 분. (한국어, 영어)
4.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분
5.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

### 제출 서류 (구비 서류)

1. 교회 소정 양식에 따른 이력서, 목회 계획서 (bethanydallas.org/담임목사청빙공고)
2. 학위증 사본 (대학교, 신학 대학원 M. Div. 최종 학력)
3. 목사 안수증 사본
4. 최근 설교 2편 (mp3 or youtube link)
5. 추천서 2부 이상 (추천인이 청빙위원회에 직접 email 혹은 우편 발송)
6. 자기 소개서, 사모님 자기 소개서

### 제출 기간

2020년 4월 30일 까지이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후 1차 대상자에게만 연락드립니다.

### 제출처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bethanypnc2020@gmail.com)  
\*문의 사항은 e-mail로만 문의해 주세요.

##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4020 Marchant Blvd, Carrollton TX 75010 Tel.972-395-9200  
bethanydallas.org bethanypnc2020@gmail.com

# “활기찬 노년, 베델교회 MIT 시니어 대학이 책임집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15주간 진행



시니어대학 학생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어바인에 소재한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3월 6일(금), 62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한 MIT(Master’s Institute of Teachable Disciples) 대학 봄 학기를 개강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MIT대학은 예배, 교제, 교육 등을 통해 시니어들을 주님의 제자 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예배와 함께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건강 정보 특강 등 다양한

특별 활동을 제공한다.

수업 일정은 예배, 공통 과목인 스트레칭과 라인댄스, 점심식사를 비롯해 3대 노인 질병이라 할 수 있는 치매, 낙상, 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도쿠(Sudoku), 종이접기, 바둑, 동양화, 서양화, 채색 스케치, 서예, 손뜨개, 스마트폰, 사진, 컴퓨터, 스피커, 영어성경, 아코디언, 하모니카, 노래교실, 탁구와 스트레칭, 라인댄스, 고전무용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됐다. 또한 5월 중 일일 관광도 실시할 예정이다.

MIT 대학은 6월 12일까지 15주간 매주 금요일 진행되며 등록비는 120달러다. 수강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한다.

MIT 팀장 임낙현 장로는 “이번 학기에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학과들을 신설하고 각 분야의 전문 강사들을 모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시니어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활기찬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영적 재무장을 도와 차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을 남길 수 있도록 돕는 MIT 대학에 많은 시니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 장로는 또 “MIT 대학이 교회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을 섬기며 믿지 않는 어르신들을 초청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매주 30여 명의 식당 봉사자들의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고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임낙현 팀장 (949) 383-7177

# 창립 4주년 임마누엘 사랑교회, 신현우 목사 취임



임마누엘 사랑교회 신현우 목사(우)와 줄리아나 신 사모(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위해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길 소원한다”며 “바른 복음 위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바로서 나아가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예배에서 ‘우리의 사명’(겔 36:21-3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문흥국 목사는 “임마누엘 사랑교회가 선교지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온 세상 드러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소 : 3407 W. 6th St #103, Los Angeles CA 90020  
문의 : 213-604-3004  
213-618-4039

LA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임마누엘 사랑교회는 지난 23일(주일), 교회 창립 4주년 기념예배와 신현우 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신현우 목사는 취임사에서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즉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중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튜브 방송(복음 채널) 방송선교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슛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T:(310)749-2522



밸리 호산나교회 창립 18주년 기념예배 드려 밸리 호산나교회(담임 이흥권 목사) 창립 제18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23일,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회장 장광춘 목사) 임원들과 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광춘 목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갈 6:7-10)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 GIFT 12차 새사람 전인치유 힐링캠프 개최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한다”

GIFT(Global, Individual, Family, Transformation) 새사람 전인치유 연구원이 주최하는 제12차 힐링캠프가 오는 3월 21일(토)과 3월 28일(토) 양일간 오전 8시 30분부터 플러튼에 위치한 갓스 패밀리 처치(6551 Western Ave. Buena Park)에서 개최된다.

힐링캠프는 강의와 실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관계 회복과 내면의 평안을 얻는 시간으로 이뤄진다.

힐링 캠프는 치유와 상담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달훈 의학박사와 GIFT 전문 상담소와 상담치유 연구원 원장인 리디아 전 임상심리학 박사가 진행한다.

강사로 나서는 전달훈 박사는 남가주 사랑의교회 장로로 MIT와 UCLA를 졸업하고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관계 심리학, 탈북신학교에



GIFT 상담치유연구원 “제11차 새사람 전인치유 힐링캠프”

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는 오렌지카운티에서 20년 이상 의사로 일하고 있다.

리디아 전 박사는 USC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바이올리대학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5년 이상 현장에서 상담 사역을 해오고 있다.

GIFT는 “힐링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와 회복, 성숙을 경험하

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치유와 상담 사역에 귀한 배움과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캠프 등록비는 250달러며 치유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정보와 등록은 웹사이트 giftheal.com 혹은 714-522-4438로 문의하면 된다.

정다혜 기자

# 순복음 북미총회 LA 지방회, 이상호 목사 회장 연임

### “성령 안에서 하나 됨으로 복음의 증인 된 사명 감당할 것!”

순복음북미총회(총회장 진유철 목사) LA 지방회는 지난 26일,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2020년 LA 지방회 총회를 갖고 이상호 목사(주님의 기쁨 교회)의 회장 연임을 결정했다.

이상호牧사는 “LA 지역 순복음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이뤄 복음의 증인 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쓸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숙된 모습을 통해, 화합, 섬김의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이상호牧사는 또 “3월 30일(월)부터 4월 2일(목)까지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되는 순복음 북미총회가 순조롭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 “생명력이 전파되는 인생”(왕하 5:1-4)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진유철 목사는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한다”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자들이 되자”고 전했다.

진유철 목사는 이어 본국의 코로나19



순복음 북미총회 LA 지방회 회장 이상호 목사

확산과 세계 도처에서 한국인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했다.

지방회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도록 >한국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과 은혜로 나아가도록 >신천지 이단세력이 박멸되도록 >한국의 외교 경제가 안정되도록 >이 질병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김동욱 기자

## 제3회 캘리포니아 머슴교회 세미나 열린다

### 3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홀러튼 장로교회

제3회 캘리포니아 머슴교회 세미나가 3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홀러튼 장로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에서 열린다. 머슴교회 세미나는 송영선 목사(빌립보교회 원로목사)가 감사로 나서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빌립보교회의 비전과 사명, 추구하는 가치, 교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 등을 진솔하게 나누게 된다.

세미나는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등록비는 식사와 교재를 포함해 100달러다.

문의 : 이흥록 목사 714-932-3352

**제3회 캘리포니아 머슴교회 세미나 2020**

- 일시** 3월 16일(월) 10 AM ~ 18일(수) 5 PM
- 장소** 홀러튼 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인철 목사  
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 강사** 송영선 목사 (빌립보교회 원로목사)
- 등록비** \$100 (교재, 일일중 식사 제공)
- 접수** 2월 1일 ~ 28일 (25명)
- 등록문의** 이흥록 목사 (714)932-3352

CHURCH OF PHILIPPI WILKINSON  
1742 Rock Road, Houston, TX 77078  
MANKA INSTITUTE, CHURCH OF PHILIPPI  
7422 Rock Road, Houston, TX 77078

## 美 테네시 주에서 일어난 회개와 부흥운동 ‘Awaken Tennessee’ 30일간 진행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이스트로저스빌 침례교회 제공

미국 테네시 주에서 금식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테네시 주에 속한 수백개 교회들이 지난달 26일부터 ‘어웨이크 테네시’(Awaken Tennessee)라는 기도과 금식 운동을 30일간 진행하고 있다.

테네시 주 로저스 빌에 위치한 이스트로저스빌 침례교회 목사인 존 버틀러는 지난 20일 CP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부흥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해왔다”면서 “이 부흥운동이 50년 전 일어난 애즈버리 부흥과 25년 전 텍사스 주 브라운우드에서 일어난 부흥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도 어떤 것에 기초한 부흥이 있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부흥운동은 말씀중심적이고 기도중점을 둔 부흥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버틀러 목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고 사람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다.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CBN에 따르면, 내쉬빌에 위치한 에토스 교회 데이브 클레이튼 목사가 지난해 4백 교회와 연합해 시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난해 부흥운동이 시작됐다. 주 전역의 다른 목회자들은 그들의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부흥운동에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이 부흥운동에는 침례교, 개리교 교회 및 오순절 교회 및 카리스마 교회가 모두 관련되어 있다.

버틀러 목사는 CBN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최근의 부흥운동으로 우리는 성장했다. 부흥의 파도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어웨이크 테네시’의 코디네이터인 셸던 리베세이는 “이 지역을 향한 50년간의 기도가 쌓여있었다. 지난 2년간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깨우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다”면서 “어웨이크 테네시”를 통해 성령의 임재가 교회에서 폭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LA 지역**

**LA백송교회**  
백합화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세례침례, 이민·가정치료, 선교·영성훈련을 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lden 고개)  
T. (213) 386-2233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양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 www.lasaehan.com

**에은장로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천·초 정진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건너 반대편)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 www.lajvc.webchurch.kr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 www.wpcjesus.com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평화교회**  
선교와 진리로 세계를 섬김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 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 www.pcjc.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213)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신용한**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으로 새 생명을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6:30(토)

**이중천**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화-토)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유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오전/월)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서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00(본성전) 매일QT 화-금 오전 6:00  
토/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말씀강해(미리미리)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토)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교육관)  
Bierlan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나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회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845-5431 F.(818)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절연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오명천**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들** MP채들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8:00 새벽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9:00영성집회 화-토 7: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 토 오전 6:00 588 Aliso Ave., Monterey Park, CA 91753  
18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4부예배 월-금 오후 5:30 / 토 오전 6:00  
T. (818)363-5887 Fax: (818)363-5887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신천지는 왜 정체를 숨기나? '교회 파괴적' 교리,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나



©뉴스시스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가 되고 있다. 26일 오전까지 확진자 1,146명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사례가 597명(52.1%)으로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다. 왜 이토록 신천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까. 이들의 반사회적·반종교적 교리가 꼽힌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식의 소위 ‘선민의식’은 비단 신천지만의 것이 아니다. 소위 다른 이단 집단들도 구체적인 교리는 다들 모르나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신천지가 이들과 다른 점은, 그들이 집요하리 만큼 기존 교회에 파고들어 분열을 조장하고 급기야 교회 전체를 소위 ‘신천지화’ 하는 무서운 행태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그래서 신분을 감추고 그들의 시설을 ‘문화센터’나 ‘복음방’이니 하는 것으로 부르면서, 마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 측이 교인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당국이 방역에 애를 먹고, 교인들이 정체를 숨기다 뒤늦게 ‘커밍아웃’ 하면서 감염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신천지의 이런 교리 때문이라는 게 다수의 지적이다.

또 최근 신천지가 그들의 시설이 폐쇄되면서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로 흩어지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해 지역 교회들은 바짝 긴장해야 했다. 신천지는 이를 부인했지만, 교회들이 이를 기정사실처럼

럼 받아들인 것도 그 동안 신천지의 이 같은 교리가 꾸준히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이들의 ‘교회 파괴적’ 교리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우종학 교수(서울대)는 26일 자신의 SNS에 “신천지 교인들이 신분을 숨기는 것은 단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며 “그것은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의 특징이다. 이들은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는 비밀조직이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 명단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비밀조직, 반가족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은 그저 개인의 신앙의 문제로만 여길 수 없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신천지를 ‘NL(민족 해방) 조직’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신천지가 침투하면 교회들이 줄줄이 넘어가거나 두 쪽으로 나뉜다. ‘추수꾼’을 들여보내 다른 교회를 장악하는 이른바 ‘산유김’도 NL 조직의 대중조직 접수방법”이라며 “사이비 교단이 한때 NL운동권의 발달한 정치적 노하우로 무장한 덕택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신천지의 이 같은 만행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그 무서움을 제대로 알려 반사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신천지 집단의 뿌리를 뽑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김진영 기자

정부, 신천지 교인 21만 여명 명단 확보



경북 김천시가 25일 평화동에 있는 신천지교회 교육장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이 교육장은 주 3회 20~30명의 신도들이 이용했으며 최근 폐쇄됐다. ©김천시 제공

일본 '선제적 격리 후 검사해 추가 확산 막겠다'

일본 당국은 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기도를 하는 예배 방식이 코로나19 감염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신천지가 제공한 21만여 명의 명단을 기초로 선제적으로 격리해 검사를 실시해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교단 명단에 빠진 이들이 있거나 교인들이 일부러 증상을 감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가 제기된다.

대구 신천지 측 예배에 참석했던 31번째 환자는 자신이 먼저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지만 보건소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은 오히려 환자가 검사 권유를 거부했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형구 기자

코로나19 감염자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신천지가 전체 교인 21만 여명의 명단을 정부에 제공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가 25일 전체 교인 21만2천여 명의 명단을 전달했다”며 “보안을 전제로 이를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977명이고 그중 신천지와 연관된 환자가 501명이다. 신천지 연관자가 전체 환자의 약 51.2%다. 18일 신천지 교인인 31번째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지 불과 8일 만에 감염자가 501명으로 불었다. 신천지가 ‘숙주’ 노릇을 했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와 청도 소재 신천지와 연관된 시

# “저 사실 신천지예요” ... 코로나19가 벗긴 신천지 위장 가면



코로나19 확진 판정 직후에야 신천지 신도임이 밝혀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신천지 홍보영상 캡처

## 확진 후 신분 드러난 사례 잇따라 발생 신천지 신도 명단 공개 극도로 꺼려 폐쇄성과 위장술로 현황 파악 어려워

코로나19 확진 판정 직후에야 신천지 신도임이 밝혀지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위장을 일삼아 온 신천지의 실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구 서구보건소에서 감염 예방 업무 총괄을 맡았던 A팀장은 22일 코로나 검사 후 이튿날인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판정 직전에서만 스스로 신천지 대구지회를 다녀갔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A팀장은 지난 20일 시·도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병)로부터 받은 신천지 교인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자, 21일 일본으로부터 자가 격리조치를 받았으며, 격리 첫날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함께 근무한 50여명의 직원들도 격리 조치를 받았다.

대구 동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역시 21일부터 발열 증상이 발생, 22일 검사를 진행해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검사 직전 스스로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사실이 24일 밝혀졌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과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천지 특유의 폐쇄성과 위장술로 인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신천지가 신도의 명단 공개를 극도로 꺼리며,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교회에서 포교를 해 온 신천지의 특성상 공개된 명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 때문이다.

신천지가 자체 공개한 목록에는 대구시에만 22개 시설이 기재돼 있으나, 대구시가 자체 파악한 결과 3곳의 복음방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기도도 비슷한 상황으로, 신천지가 공개한 곳은 239곳이었지만, 도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270개가 확인됐다. 이마저도 신천지가 제공한 정보와 일치한 곳은 111곳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의 문제를 지적해 온 ‘종말론사무소’는 22일 “전국의 72개 본부 및 지교회와 306개의 센터(위장신학원), 사무실 103개소와 기타 1,048개소 등 총 1,529개의 모임 및 집회 장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도처에 퍼져 있는 건물(장소)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지자체들은 신천지에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내 시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향후 14일간 신천지 측에서 진행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신천지가 밝힌 공식 시설을 비롯해 센터와 복음방 등 집회가 가능한 모든 시설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송경호 기자

## 신천지 입장 발표

### “코로나19, 우리가 최대 피해자”

유튜브 통해 공식 발표... 거짓 대응 매뉴얼 논란 등 직접 언급 무



신천지 측이 23일 유튜브로 입장을 표명하던 모습. ©유튜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23일 오후 5시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신천지는 최대 피해자”라고 했다.

이날 공식 입장에는 ‘거짓말 대응 매뉴얼 논란’이나 지난해 중국에 설립한 ‘무한교회’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대신 김시몬 신천지 대변인은 “신천지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보건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현재 대구 교회 성도 9,294명과 대구 교회를 방문한 성도 201명을 포함한 신천지예수교회 전성도 24만 5천명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8일 저녁, 31만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린 인원 1차 명단을 대구시에 제공했고, 19일 오전 6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병)에 최종 명단을 제공했으며, 20일 대구교회 전 성도 명단 제공했다”며 “현재 대구교회 성도 9294명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를 완료했고, 모든 성도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18일부터 모든 모임, 예배, 전도 등 성도들의 모든 교회 활동을 중단하고, 18일부터 전국 교회 및 부속 기관 1,100개를 폐쇄조치하고, 21일까지 모든 소독,

방역을 마치고 22일에 소독, 방역 현황을 공개했다. 일본에는 주소도 제공했다. 이 사실은 신천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해 모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신천지 대구 교회 성도 중 연락이 닿지 않는 670명은 보건 당국과 지속 연락을 취했고, 장기간 출석하지 않아 연락되지 않는 253명도 모든 방법을 통해 연락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이 사태를 고의로 감추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계속돼 의도적 비방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추측성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 보도를 멈춰 주길 바란다”며 “대구 교회 전체 명단이 유출돼 지역 사회에서 신천지 성도를 향한 강제 휴식, 차별, 모욕, 퇴직 압박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병해 대한민국에 전파된 질병”이라며 “신천지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임을 인지하고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국의 모든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신천지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거짓말 대응 매뉴얼’ 개인 차원의 일로 공식 입장과 다르다며 해당자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 공식 홈페이지의 2019년 연혁에 있는 ‘무한교회 설립’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 김신의 기자

##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피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주 오전 10:20

**서보현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신앙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믿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일린예배 오후 1:30  
이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방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대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단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분단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분단  
KM(천년예배) 오후 2:00 분단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단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단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짐으로 오령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 O. 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모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이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이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인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예배 오전 6:00 설거지 예배 매일 4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이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애이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으로 영생을 살리는 은혜공동체 ALL IN Jesus 4-계 2-계 3-계 4-계 5-계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cg.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으로 세움 받은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향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오후 7시 안성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주일예배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www.dagamsachurch.org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주일예배 오전 11:30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부예배 오전 7:15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 오후 7: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들세대를 바꾸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장년 영아)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주일 인터넷 생방송 6: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장년 영아)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주일예배 오전 10:0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1부예배 오전 7:3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부예배 오전 7:3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1부예배 오전 7:3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ister, CA 92683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PCUSA 서기, 교단 대표해 "코로나 바이러스 치유 위해 기도"

NCKPC 최병호 총회장 "모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한 폐렴 발병이 시작된 시기에 중국 병원을 찾은 많은 환자들 ©유튜브 영상 캡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주변 지역을 비롯한 전세계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PCUSA 교단의 정서기인 허버트 넬슨(J. Herbert Nelson) 목사가 교단을 대표해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의 치유와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교단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서 "또 우리는 의료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보조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들이 돌봄 속에서 통찰력을 갖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청교도 이민 400주년, 이상적 신앙의 공동체 정신 계승해야



청교도 이민 400주년 기념예배

에틀렌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남궁전 목사) 주최 청교도 이민 400주년 기념예배 및 특강이 성료됐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용규 역사신학교수가 강사로 나선 집회는 23일(주일) 오후 6시 베다니감리교회(담임 남궁전 목사)에서 기념예배가, 24일(월) 오전 10시 30분 방주교회(담임 김성범 목사)에서 특강이 진행됐다.

박용규 교수는 "청교도 운동은 성직자들이 의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됐지만 신앙의 개혁으로 이어져 근본적 개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청교도는 사도행전 이후 가장 이상적 신앙의 공동체이다. 교리, 경건, 문화. 이 세가지가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신앙의 공동체이다.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들었으며 경건했고, 학교를 세우는 등 문화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틀란타=김앤더슨 기자

# 청교도 이민 400주년 기독교 영성 회복의 길 <제5편>



## 청교도들이 신앙에 끼친 영향 (1)

1517년 독일의 Martin Luther에 의해 시작된 종교 개혁 운동의 불길은, 스위스의 취리히와 제네바를 거쳐 영국을 향하여 달려갔다. 영국에 상륙한 개혁 사상은 마침내 순수하고 까다로운 청교도들(Puritans)을 배출하기에 이르렀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행하기를 까다롭게 따지는 청교도들의 눈에는, 로마 가톨릭을 버린 영국 국교회도 로마 가톨릭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청교도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개혁의 대상이었다. 그 중에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성직자의 복장문제를 중심으로 촉발된 <예전과 관련된 문제들>과 세속 권력에 의한 <계급적 교회 정치 제도>였다. 청교도들은 이런 “가톨릭의 누더기”들과 싸우면서,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자체적으로 <설교 운동>을 심화해 나갔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살펴보기로 한다.

### 1) 예전에 관련된 문제-성직자의 복장과 미신적인 예전의 타파

1558년 피의 메리(Bloody Mary)가 죽고 Elizabeth가 왕이 되자, 로마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 사이의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Elizabeth는 이도저도 아닌 중용 정책을 폈으나, 까다롭고 순수한 청교도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일찍이 1550년에 John Hooper가 성직자의 복장 논쟁을 일으켜서 큰 반향을 얻는 적이 있었다. 성직자의 복장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직자의 복장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영국 국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누더기”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십자가 성호를 긋는 행위, 견신례, 성찬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성찬상에 사용한 떡을 치료용으로 환자에게 주는 것,

해산한 여인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 산파가 행하는 유아 세례, 성자(?) 기념일, ‘사제’라는 명칭 등등이 모두 미신적인 것으로 청교도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모든 미신적인 것들과 싸우다가, Bloody Mary에 의해 300여명의 개혁자들은 스미스필드에서 순교하였다. 이들의 순교가 그 씨앗이 되어, “로마 가톨릭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신약 성경을 순수하게 따르는 성경적인 개혁주의 예배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영국의 개혁 운동의 중심에 있던 Thomas Cranmer에 의해서 목회자의 결혼이 허락되었고, 교회에서 우상이 제거되었다. 성화가 사라졌고, 제단 대신 성찬상이 교회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왜곡된 교리를 배제하고 종교 개혁 사상이 담긴 <기도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Cranmer는 잠시 개혁 사상을 부인하였으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개혁 신앙을 부인한 것을 반복하고, 스스로 순교를 선택하였다.

### 2) 교회의 정치 제도에 관련된 문제-교회와 목사의 감독으로부터의 독립

종교 개혁이 진행 중이던 당시에는, 교황, 황제 그리고 국왕들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서로 뒤엉켜 있어서, 교회가 정치 세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형편이었다. 왕은 세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회를 장악하여 교회의 운영을 좌지우지 했다.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장애물은 바로 교회 당국, 즉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제도라는 것을 알고, 이를 타파하고자 나섰다. 당시에 영국 국교회의 Sandys

주교는 청교도 사상과 적대적이었다. 그가 취리히에 있는 Heinrich Bullinger에게 청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을 편지로 알린 적이 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국교회에서 볼 때 대단히 충격적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정부는 교회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정부도 교회의 일원이 지나지 않으며, 교회 행정은 목사에게 속하는 권한이다. 그리고 교회는 장로들 즉 목사, 장로와 집사에 의하여 다스려져야한다. 둘째, 교회의 계급 구조인, 대주교, 부주교, 수석 사제, 종교법 고문관, 주교 대리 등의 호칭이나 지체는 없어져야 한다. 셋째, 각 교회는 자체의 당회를 가지고 당회가 교회의 의사를 결정해야한다. 넷째, 목회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교인들에게 있다. 다섯째, 감독교나 성당에 속한 재산, 토지, 수입, 직위나 권한은 즉시 그리고 영구히 사라져야한다. 여섯째, 목사는 자신의 교인들에게만 설교할 수 있다. 다른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설교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은 당시의 영국 국교회가 개교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던 제도적인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장로정치 사상을 담은 것이다. 오늘날의 장로교회와 개교회 주의는 영국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의 인약파에서 그 씨앗을 찾을 수 있다.

### 3) 설교 운동 - 예전 중심의 예배가 설교 중심으로 변화

이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들 외에, 청교도들은 성경의 참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주력했다. 그 운동이 설교 운동이었다. 실제로 중세에는 가톨릭 신부들 중에는 라틴어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사제들도 있었다. 게

다가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경 말씀보다는 미신을 섬기는 부분들이 많았다. 이러한 와중에 성경적 기독교를 회복하고자 개혁주의자들, 청교도들이 나섰다.

William Perkins(1558-1602)는 세인트 앤드류 교회의 강사로 일하면서, 설교 운동을 벌였다. 그는 올바르게 성경적이며 청교도적인 가치관을 심기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영국 국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 가야함을 설교를 통하여 역설하였다. 양심의 판단 기준을 기존 교회의 전통이나 관례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은 성경에 둬서 성경 중심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설교에 힘썼다.

Perkins는 또한 <설교의 기술>(The Art of Prophesying)을 저술하여 바른 설교 운동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설교자는 청중들을 먼저 알아야 하며, 청중의 편에서 서서 설교해야하며,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모두 알아듣는 설교를 해야 하며, 철학이나 윤리를 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한다고 가르쳤다. 설교의 목적은 청중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한다고 가르쳤다.

설교 운동을 전개한 또 한 사람을 든다면 Richard Sibbes(1577-1635)를 들 수 있다. Sibbes는 영국을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국 교회 안에서 설교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건한 설교자를 양성하고, 국교회에 의해 핍박당하는 목사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도움이 필요한 목사들에게 생활

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설교 운동이 힘을 얻어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또한 Sibbes 자신도 설교에 힘썼다. 장황한 문구나 미사여구를 피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청중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다. 설교의 초점을 분명히 이해시키고, 설교의 성숙함과 경건함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려고 했다. 그리스도의 인간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권세와 오래 참으심, 성령의 역사와 믿음에 의한 의로움, 신자들 안에 있는 원죄, 구원의 확신과 기쁨 등 복음의 주제들을 주로 설교했다.

이와 같은 설교 운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청교도들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교도 운동의 결과로 예배의 중심이 예전에서 설교로 옮겨지게 되었다.

### \* 참고 문헌

1. 오덕교, 종교 개혁사(서울,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14)
2.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2)
3. 김의환, 기독교회사 1(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8)



박종승 목사  
예심교회 동역목사  
WYW Ministry 사역

##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 기념 성경테마여행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청교도 미국 도착 400주년을 기념하여 기독교일보와 WYW Ministry.에서는 미국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의 역사관광지 그리고 청교도가 미국에 정착한 역사를 볼수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와 마을들을 돌아보며 청교도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안내합니다.

\$479

+ 항공요금

노아의 방주를 타다 !!

날짜 : 3월 10일 / 4월 14일 / 5월 12일 / 9월 15일 / 10월 13일 / 11월 10일  
일정 : 창조박물관 견학(천지창조, 예수님의 사역)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현대의 생활모습을 거부하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앙공동체인 아미쉬 마을  
클리프트 주립공원을 아름다운 경치 감상  
시카고 시내 관광

\$519

+ 항공요금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

날짜 : 9월 22일 / 10월 20일 / 11월 3일  
일정 : 플리머스 청교도 도착한 랜딩플레이스  
청교도들의 마을 " Plymouth Plantation "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Cape Cod 청교도 첫 도착한 항구  
400년전 모습으로 다시 복원된 메이플라워 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프리덤 트래일  
동부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499

+ 항공요금

필라델피아를 가다! 말씀과 역사를 따라

날짜 : 4월 21일 / 5월 19일 / 6월 9일 / 9월 8일 / 10월 6일 / 11월 10일  
일정 : 레위기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성막 체험  
기독교의 브로드웨이로 불리는 2000석 규모의 성경 뮤지컬  
미국 최대의 아미쉬 마을 방문  
펜실베이니아주 아름다운 경치 감상  
민음의 유산으로 세워진 프린스턴 방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필라델피아 역사지구

주최 : 기독교일보

주관 : WYW Ministry, Bliss Travel

(714)681-6356, (213)434-1170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본교 지원시 특전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나 교역학 석사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개강일자: 3월 19일 입학상담 : 213-272-6031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월 일 개강

등록상담전화

###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인 척 스윈들 목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10%는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고, 90%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경제 불황이 찾아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위대한 날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도 휴직했을 때라고 합니다. 당시 흑사병으로 대학들이 문을 닫을 때 그도 교수직을 그만두고 2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 다. 그때 그는 농장에 머물면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다 물



박성근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

리학 최대의 발견이라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터득한 것입니다. 물리학과 사과 나무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실험실에 묻혀 사느라 보지도 않았을 한 그루의 나무가 인생의 위대한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반응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때 믿음의 반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역경에 처해도 당

당한 모습으로 그것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두려워 하거나 의기소침해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기를 전도의 기회로 삼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냈다.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당당한 자세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빌립보서 4:13이 그 비결을 소개해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역이건, 개인의 삶이건,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역경을 넘어 새 능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수상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리시길 축원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을 보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2월 21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156명이 되었고,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에서는 63세의 환자가 첫 사망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정도의 병원에서는 숨진 환자를 비롯하여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중의 5명은 간 호사입니다. 더구나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 111명 중 84명은 대구이고, 그 84명중 82명은 신천지신도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가 국제적인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는 동양 사람에 대한 회피와 거부, 아시아의 공공장소에서는 기침을 하는 것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20일 오후 11시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74,680명의 확진자와 2,122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크루즈선(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확진자 634명과 2명의 사상자를 빼면, 영토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92명, 그리고 사망자는 1명으로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85명, 태국 35명, 말레이시아 22명을 뒤를 따릅니다. 폐쇄적인 북한의 상황도 통계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를 생각할 때 보통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집회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천지 집단감염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초기 상황에서도 서울 원남동의 명륜교회에서 2명(6번, 21번)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박세덕 담임목사는 집회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의 역사 이래 최초로 2주간을 교회당에 모이지 않았습니 다.

2월 16일 다시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박세덕 담임 목사님은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들을 향하여 조심스런 태도가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여서 그렇다.’ ‘신천지가 이단이라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하면서 쉽게 심판관의 자리에 서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불행을 맞이할 때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좋지만, 남이 당한 불행의 이유를 내가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임상으로 증명된 코로나19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조심스런 행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깊은 도전을 던져줍니다. 레위기에서는 나병이 있는 사람을 철저히 격리시켰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하다 판명된 환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생각하였으며, 8일 만에 제사장의 인도를 통하여 돌아왔습니다.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입은 옷, 앉은 자리, 그가 사용한 용품이 모두 격리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에 접촉한 사람도 역시 저녁까지 부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영적 건강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사랑하고 부하러 하는 사람의 시험과 울무를 피하라고 합니다(딤후 6:6, 9-10). 피할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합니다(딤후 6:11-12). 우리가 기초체력과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령되고 더럽고 헛된 것을 피하는 것도 영적 건강을 위한 필요한 부분입니다(딤후 6:20).

###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임을 실감나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국경이 무색하게 넘나들며 번져가는 모습에 다들 속수무책인 듯합니다. 국가 간 아무리 담을 치고 입국 수속을 까다롭게 해도, 바이러스는 비자도 없이 글로벌 엔트리 통과입니다.

한국에서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확진자는 이단 신천지 신도인데, 같이 예배드린 사람들 중에 감염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분의 동선 파악인데 직업상 다단계를 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녔는지 알 수 없고, 그 범위가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번져 나갈 것이 염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예언한 다니엘서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Many will go here and there to increase knowledge”(단12:4)고 했는데, 오고 가는 것이 빈번해지고 그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 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더욱 실감하게 됩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니다. 이번 일로 슈퍼 전파자가 속한 신천지 이단의 모습이 언론에 다소 노출 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청원하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취재진에 의해 그들의 예배 실상이 언뜻언뜻 모자이크 처리되어 보이는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중 하나가 무대 위에서 있는 자들이 모두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는 몸동작이 북한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느낌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저런 데 가는 걸까,

왜 저들은 개인의 자유를 상실한 영혼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성령의 자연스러운 새 생명의 역사가 없는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 그곳에는 인간적인 체면과 조직력, 그리고 거짓 교리의 강압과 공포에 끌려가는 영혼들이,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된 모습처럼 안타까웠습니 다.

혹시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느낌을 받는 분 들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유니폼에 거부감을 느끼듯, 성가 대원들이 입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운을 입은 성가대가 평생 보던 모습이라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만, 색깔 정도만 비슷하게 통일하여 그 안에서 표현의 자유로움과 동시에 절제된 균형이 묻어나는 모습으로 찬양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아마 담임목사부터 주일에 넥타이를 풀어야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더 넓은 곳으로

# 확장기념 플로어 30% 세일

수술 않고 해결합니다! 척추통증·좌골신경통

## 2020년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 하루 5분

허리 통증, 손발저림 통증, 모든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월~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 무료 체험

허려 오세요

“이 전역 딜러 모집” 자기방어용 신변보호장치 전기충격기!!!

“지난 20년간 한인타운 스테디셀러” 후지미 마사지체어 최초 플로어 세일

한국인 체형에 가장 맞는 마사지 체어 Massagechairtechnicians.com에서 2019년 미국 내 No.3

\*Fujimi.us의 GT 700 massagechair LOLC Edition 플로어 전시용에 한함.

LOLC Inc. | Tel. 213-700-8382  
For the Spirit & Body |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VOTE  
**JAKE JEONG**  
 LA COUNTY SUPERVISOR

LA의 변화,  
 당신의  
**한표**에서  
 시작합니다!

**2/29 토 ~ 3/3 화**  
**투표하세요!**

**제이크 정**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JAKE JEONG**  
 Community Advocate/Attorney

**ID만 가지고 투표소에 가시면 됩니다!**  
**사전 등록 필요없습니다!**  
**문의: 213-688-2001**

**투표소**

한인타운내:	Inglewood	Gardena
다울정 노인센터	Faith Central Bible Church	Nakaoka Community Center
코헝가 초등학교	333 W. Florence Ave., Inglewood, CA 90301	1670 W. 162nd St., Gardena, CA 90247
찰스 킴 초등학교	Hawthorne	Carson
엘에이 초등학교	Hawthorne Library	Carson VFW Post #10166
월셔 파크 초등학교	12700 Grevillea Ave., Hawthorne, CA 90250	2082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동양선교 교회		Carson Civic Center
		801 E. Carson St., Carson, CA 90745

# 특필기고 영화 '기생충'에 던지는 크리스천의 질문



강태광 목사  
월드웨이 USA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이 화제입니다. 한국 영화 관계자들은 '한국 영화계의 패거리'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장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봉준호 감독을 위시한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수상 후 많은 미국인 친구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기분 좋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척박한 한국 영화산업에서 이런 대단한 성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생충이란 영화에 박수를 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니다. 영화 기생충은 기독교적 문화관에서 볼 때 아주 불편한 영화입니다. 반기독교적 설정이나 기독교 폄하 장면은 없었지만 영화의 메시지와 주요 설정이 아주 불편합니다. 영화를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에 시비를 걸지마라!'라는 조언도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 동성애 영화들이 나올 때 많은 염려와 비판에 '영화는 영화다!'며 비판을 막더니 지금 동성애가 미국 사회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쿼이 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큰 제약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영향력을 간과한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불편한' 포인트들을 기독교적 문화관 관점에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왜 기생으로 보아야 할까요?** 영화 기생충은 숙주와 기생충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독처는 비성경적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조화로운 공생을 해야 합니다. 공생의 지혜를 모르면 행복은 고사하고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공생의 지혜가 행복의 지름길이요 생존의 지혜입니다.

모든 고용주와 직원은 공생합니다. 삼성 직원들은 회장과 공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회장 일가도 직원들과 공생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가족이 사장의 집에서 기사, 가사도우미, 가정교사로 살아도 그것은 기생이 아닌 공생입니다. 기생은 결국 숙주와 함께 파멸적 결말에 이릅니다.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과도 공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공생의 행복을 기생의 불행으로 도색하고 있습니다.

**둘째, 왜 방법이 사기와 투쟁일까요?** 자신들의 가난을 극복하려고 한 가족이 집단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개인이 사기 칠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이 어찌다 한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 식구는 집단적, 계획적, 의도적 악행을 반복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같이 악하고 거짓되게

취직합니다. 비판과 자성이 없는 악행의 반복은 악행의 일반화입니다. 악행의 일반화는 악행의 문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악행 일반화 메시지를 영화 전체에서 강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악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 왜 갈등의 해결이 살인일까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에 갈등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친밀함의 부산물입니다. 친밀한 관계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갈등의 내용과 해결 방식이 중요합니다. 갈등의 내용과 갈등 해결의 양식이 개인과 사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시시한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은 시시한 사람입니다. 멋지게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갈등을 품위 있게 해

결하는 고품격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품격 있는 결자들에는 품격 있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오랜 감동을 주는 명작들은 갈등의 해결이 근사합니다. 영화 기생충의 갈등은 내용도 결말도 천박하고 추악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갈등의 결말입니다. 사장의 가슴에 칼을 찌는 끔찍한 살인으로 갈등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기생충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대단히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갈등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갈등들은 요셉과 형들과의 갈등, 다윗과 사울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들이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은 해결이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믿음과 영성으로 형들과의 갈등을 해결합니다. 다윗도 믿음과 영성으로 사울과의 갈등을 해결

합니다.

영화 기생충은 갈등의 내용도 갈등의 해결책도 불편합니다. 영화 기생충이 제시하는 빈부의 갈등은 건강하지 않고 그 갈등의 해결도 상생이나 공존이 아닌 파국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보여주는 천박한 갈등의 내용과 섬뜩한 갈등의 해법은 극적인 스토리 전개로 관객 끌기와 인기 몰이에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볼 때 불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생이 아닌 공생을 지향해야 합니다. 공생의 현장에서 건강한 갈등을 품어야 합니다. 나아가 갈등 해결도 파국이 아닌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나아가 공생과 공존의 지혜를 나누고, 상생과 공존의 길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알아야 합니다. 상생, 공존, 공생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연세대의 명예교수  
민성길 교수

신체(건강)를 잘 보존해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기독교는 더 나아가 인간의 몸을 거룩하다고 가르친다. 일제시대에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에 정진과를 창설한 호주의 의료선교사 찰스 맥라렌은 인간의 몸(육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원래 신성하며, 몸도 정

유지하라는 의미이다.

보통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맥라렌의 교훈에 적용하면 건강한 식욕과 성욕에 의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올바른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생명의 보존과 창조(생식)

을 자신의 "자산" 그리고 식욕이나 성욕을 자신의 권리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인들은 몸과 성욕과 관련하여 프리섹스, 자기결정권, 낙태할 권리, 장기 매매, 죽을 권리 같은 몸에 대한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이제 내놓고 몸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영명들은, 활발한 성교육과 강력한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성욕의 자유화는 동성간 섹스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 결과 에이즈, 간염, 이질 등의 전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간의 지식과 의지가 빈약하여, 성욕의 통제에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모두는 생명을 손상시키고 수명을 짧게 만든다. 생명의 훼손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거룩하게 여기고 깨끗이 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쉽게 유혹에 빠지게 하는 성욕에 관해서는 우리는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대응하여야 한다. "성"이 우리를 더럽힐 가능성은 항상 있다. 욕망은 죄를,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성경의 교훈은 마땅히 후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 칼럼 [소중한 性 거룩한 性] 인간 육체의 영성

사람들 중에 인간의 정신은 고귀하지만, 육체(몸)는 조만간 죽어 썩어질 것으로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인간의 몸을 정신만큼 중요시한다. 이제 일반인들도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 몸은 나의 것일까? 동양에서는 전통 유교의 영향을 받아 근대까지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 하여 신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에

신과 영과 같이 등등하게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게는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몸이 병들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위험을 피하고, 담배 마약으로 몸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 몸을 존중하고 거룩하고 깨끗이

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식욕과 성욕의 추구에 대해, 에덴동산의 생명의 과일에 대한 것처럼 일정한 금단을 명하시었다.

옛 부터 사람들이 잘 절제하지 못하는 육체적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식욕과 성욕이다. 사회가 풍요해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더 탐식이나 성문란에 빠져들고 있다. 그 이유는 현대인은 자신의 몸

하면서 식욕과 성욕을 "해방"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 결과 현대인은 타인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해 과민반응으로 하면서도, 자신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룬다.

그 결과는 생명의 훼손이다. 탐식은 비만으로 이끌고 프리섹스는 성적 문란으로 이어지고 각종 성병에 잘 걸리게 한다. 성-매개 전

###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CBD BAJA HAMCHO Inc.  
www.hempbiousa.com hempbiousa@gmail.com

### 올가닉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 헴프플러스

####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과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증상완화와 환자의 약물,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종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헴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

(213)386-3896, (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티셔츠  
 굿모닝  
 머그컵 & 텀블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치과 의사 이우희  
 이동희 원장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맞춤형 후드 티셔츠**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WHEN WE PRAY

그레이  
 블랙  
 네이비  
 차콜

**할인 이벤트**

25개	\$ 19.5 (개당)	only \$15.99 (개당)
50개	\$ 18.5 (개당)	
100개	\$ 17.5 (개당)	

# 스마트폰이 신앙에 미치는 악영향 신간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  
토니 라인키  
CH북스 | 304쪽

“접속한다,  
고로 존재한다”

디지털 시대,  
스마트폰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

스마트폰이 신앙에 미치는 악영향을 파헤치는 신간이 발간됐다. 미신학자 토니 라인키(Tony Reinke)가 쓴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이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영적전투 중 하나는 다름 아닌 “폰에 대해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한다.

먼저 저자는 왜 현대인들이 그토록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한다.

그 이유는 첫째, 중요한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일에 대한 압박이 클 때, 사람들은 곧잘 폰을 집어 들고 SNS 앱을 켜서 남들 소식을 팔로우하곤 한다.

둘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별로라고 판단되어서 그에 대한 멸시를 드러내고 싶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 얼굴을 틀어박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보다 우월한 나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쉽게 전할 수 있다.

셋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일의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다. “조용한 침실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면서 자기 자신과 현실,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유익하지만 지루한 침묵 대신, 한손에 잡히는 끝없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은 중요한 것에 대한 집중을 흐트러놓는 일등공신.

그렇다면, 스마트폰으로 인해 집중이 흐트러지는 것이 왜 신앙에 위협이 되는가? 집중력이 분산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 눈멀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 눈을 감고, 그 대신 세속적 염려, 부의 축적, 개인의 안위에 집중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행위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그것은 “복음의 열매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고 복음의 소망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질식사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과 교제도 가로막히게” 된다. 이런 사례는 성경 속 인물 중 마르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는 데 정신이 팔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쳤다. “삶의 초점을 잘못 맞추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열심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

도 보지 못한다.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리감을 느끼신다.”

해결책은 뭘까. 저자는, 먼저 스마트폰의 영향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서 자가 점검이 효과가 있다.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무시로 즐기는 재미에 중독되어 있음을 드러내지는 않는지’, ‘남으로부터 지지받고 싶다는 강박적 욕구를 드러내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지 않는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에 시간을 내주는 데

신, 가까이 있는 사람들 - 피와 살을 지닌 사람들 - 을 소중히 여기고, 읽기 능력을 회복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고독을 유익하다 여기며,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뻐하라고 제안한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고요하게 하고, 스마트폰에 기대할 만한 것을 훨씬 초월하는 영원한 소망에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며 스마트폰보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권고한다.

이민선 기자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현대인들(기사 내용과 무관).

# “그냥 믿으세요”라는 말이 주는 거부감 신간 『믿음을 의심하다』



노진준 목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말이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혹시 너무 쉽게 ‘믿으면 다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간 『믿음을 의심하다』는 믿음의 본질을 성찰하는 책이다. 저자 노진준 목사는 목회할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믿으면 병이 낫나요?’처럼 믿음에 관한 것이었다. 도대체 믿음이 뭔지, 성도들은 헛

갈려 하는 것 같았다. 자신도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목회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서야 믿음의 정체가 뭔지를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자는 ‘그냥 믿으세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식의 말은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한다. 마치 심오한 진리를 다 깨닫기라도 한 듯 자신 있게 믿는다고 말하는 데서 느껴지는 “지적, 윤리적 거만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그에 따르면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지적인 동의와 신뢰다.

이 중 ‘지적인 동의’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규정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일컫는 측면을 말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같은 말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출발이고 기본이지만, 믿음의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야고보 사도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야고보서 2장 19절)라고 한 데서 보듯,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 부르다면 귀신들도 그런 동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

문.

믿음의 또 다른 요소는 ‘신뢰’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믿음에 ‘지적인 동의’만 있고 ‘신뢰’가 없다면,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마치 “나는 당신이 유능한 변호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 문제를 당신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에 따르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가르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신뢰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교세 확장에 치우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지적인 동의”라고 다시 전할 때가 왔다”고 말한다.

믿음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것. 믿음이 구원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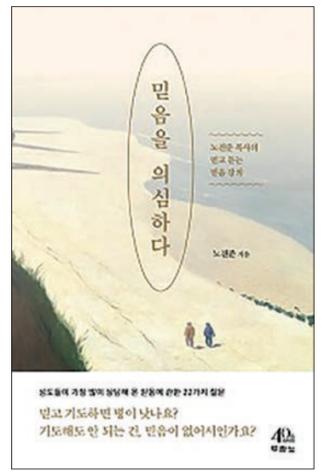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신뢰해서 그 통로(믿음)를 택한 것이지 통로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 통로를 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할 때에도,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는 ‘믿음’이라는 말이 현대인들에게 더욱 무게감 있게 들리기를 바란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면’ 혹은 ‘믿는다고 인정하지만 하면’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여기 지적인 동의와 신뢰의 요소가 다 포함됩니다.”

저자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과 변증학을 전공했으며, 미볼티모어 갈보리장로교회와 LA 한길교회에서 목회한 바 있다.

이민선 기자



믿음을 의심하다  
노진준  
두란노 | 332쪽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믿음이면  
됩니다?”



**강사소개**  
**강태광 대표** (목사, 시인, 수필가)

한국군 군종목사 20년 (미8군 KATUSA 목사, 군종학 교관)  
이민목회 20년(다인종 교회)  
당신의 행복을 여는 99가지 열쇠 저자  
시집 불청객 외 3권  
설교집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외 다수  
행복칼럼 연재(기독교일보 2년)  
크리스천 칼럼(조선일보)  
월요 칼럼(코리아투데이)  
문학칼럼 연재(침례신문, 남미복음신문)

# 행복

## Bliss Sensibility Training 감수성 훈련!

**행복 세미나(행복 감수성 훈련)를 통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 2월 28일(금) 연합 금요 성령 집회(강양구) 행복한 기도를 배우시다
- 3월 8일(주일) 기독 문인회 다윗의 행복 감수성
- 3월 22일(주일) 남가주 늘 사랑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밀
- 3월 22일(주일) 서남지방회 행복한 갈등의 이유

**행복 감수성 훈련원** T.(323)578-7933, (213)318-5227  
3123 W 8th St.#206., Los Angeles, CA 90005



※ 3월 20일은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행복의 날 전후로 행복 세미나를 지원합니다.

# 3.1절 101주년 감사예배와 구국기도회 및 기념행사

작금에 중국 우한에서 발병이 된 우한폐렴이 대한민국 전역을 우환 속에 빠지게 하였다. 급기야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을 봉쇄한다는 지시를 내린 상태이다. 물론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을 막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한폐렴의 발병지인 중국인에 대하여는 여전히 문을 개방해 놓은 상태로 국민을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3.1절 101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는 겸허히 생각해 본다. 101년 전 우리들의 선조들이 그들의 귀한 목숨을 걸어가며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나라와 국민들이 누려야 할 자유와 안전, 평안이었을 것이다. 이에 남가주 교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염병의 진원지 중국인의 입국을 당장 불허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아울러 540만의 대구 경북 국민의 수에 1만분의 1인인 5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봉쇄라는 가혹한 조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문재인 정부는 3.1운동 10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흘린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금 곱씹어 보기를 간절하게 부탁하는 바이다.

## 2020년 3월 1일

세계기도모임 서부지부 총재: 김영구 목사, 대한민국역사 지키기 운동본부 회장: 김순희 GREAT KOREA 회장: 마유진 (민주평통 16기 본국 상임위원), 배우한 (전 LA 한인회장) 충효에 실천운동본부 LA 지회장: 천성남, 채효중

# '구국' 기도회

- 1 전염병이 창궐한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 2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 3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선한 양심에 들려주시는 거룩한 말씀에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역군들을 불러 모아주시옵소서



한기형 목사

### 말씀

- 한기형 목사
  - 남가주교협직전회장
  - KCBC 기독교 방송 대표
- 민족을 살리는 모르드개 (에스더서 3장 5-6절)



수아 찬양단

공연 수아찬양단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몸으로 헌신하셨던 분들을 위한 위문공연

일시 2020년 2월 29일(토) 오전 10시

문의전화 (310) 404-6219

장소 Day Light LA Adult Health Care (2136 W. Washington Bl. LA, CA 90018)

세계기도모임 서부지부 • 대한민국역사 지키기 운동본부 • GREAT KOREA 충효에 실천운동본부 LA지회 • LA 양지회